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월 27일(주일) 제1231호

##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비전과 소망을!



청소년 예배캠프 '패션(Passion) 2019'에 참가한 청소년들.

### 청소년 예배캠프 패션(Passion) 2019 '더 스쿨 체인저스' 1월 19일부터 오늘(27일)까지 ... 청소년, 교사 2,300여 명 참석

차세대사역본부가 주관한 청소년 예배캠프 '패션(Passion) 2019' (이하 패션집회)가 오늘(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더 스쿨 체인저스(The School Changers)'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패션집회에는 청소년과 교사 2,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실에서 진행된 패션집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

1월 19일~21일 양재, 도곡, 수원, 부천, 강동, 평택, 양지, 안산M센터 청소년, 2차 1월 22일~24일 포항 및 경상지역 청소년과 교사, 3차 1월 25일~27일 서빙고, 대전, 인천, 남양주, 서산 및 태안 온누리교회 청소년이 참석했다.

이번 패션집회의 백미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비전과 소망을 선물한 주옥같은 메시지였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김용재

목사(유스코스타 강사), 강은도 목사(광교 푸른교회), 김선교 선교사(다윗의 열쇠), 김현철 목사(행복나눔교회) 등이 메시지를 선포했다. 박상학 목사(새롬중학교), 이재욱 목사(대방중앙교회), 최관하 목사(오륜교회), 김경훈 전무(구글코리아), 한건수 대표(GLAB), 권준 형제(하바스 코리아)는 특강을 했다.

노희태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라"고 적극 권면했다.

패션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고백도 뜨거웠다. 김승윤 학생(영덕교회)은 "이번 패션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다인 학생(양재 온누리교회)은 "패션집회에 오기 전에는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번 집회를 계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 권한승 기자 kcs123@onnuri.org

### 2019 목회사관학교 '기름 부으심'

2월 11~14일, 온누리교회 교역자 361명 참석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2019 목회사관학교'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기름 부으심'을 주제로 막 오른다.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철학과 비전, 사역 방향을 공유하고,

동역의 기쁨을 만끽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장(場)이다. 2003년도부터 시작돼 올해가 17번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61명(전임 189명, 파트 17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와 로버트 킬만 켄달 목사가 강의한다. 교재는 켄달 목사의 저서 <내일의 기름부음>이다. 총 7번의 강의와 팀빌딩(팀원들의 작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조직개발 기법), 기도회, 소그룹 나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저녁기도회 시간에는 전 교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며 뜨겁게 부르짖을 예정이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의 주강사인 켄달 목사는 미국 남침례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후임으로 1977년부터 영국 웨스트민스터채플에서 25년 동안 목회했다. 주요 저서로는 <거룩한 불>, <내일의 기름부음>, <감사해요 하나님>,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 등이 있다.

한편 신임 목회사관학교는 2월 2일, 9일, 21일, 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실시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문을 온누리신문 홈페이지(news.onnuri.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절기

##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 설 · 감 · 사 · 예 · 배

#### 가정 예배 지침

1) 전통적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가정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

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소박한 선물이나 말씀이 담긴 덕담으로 축복하며 가족들의 특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보다 감동적인 명절이 될 것입니다.

#### 설 가정예배순서

|                  |                                   |        |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 다같이    |
| 찬송 .....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550, 통248) ..... | 다같이    |
| 기도 .....         |                                   | 가족 중에서 |
| 성경봉독 .....       | 요한삼서 1:1~3 .....                  | 가족 중에서 |
| 설교 .....         | 진리 안에서 행통하라 .....                 | 설교자    |
| 축복의 마음 나누기 ..... |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 다같이    |
| 중보기도 .....       |                                   | 다같이    |
| 찬송 .....         | 때로는 너의 앞에 (경배와 찬양 112) .....      | 설교자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 진리 안에서 행통하라

##### 들어가는 말

기독교적인 축복(祝福)이란 신자가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히 7:7). 오늘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축복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축복의 태도와 내용과 결과에 대해 깨닫게 되며, 이로써 우리 모두는 합당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요, 참된 축복의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 추 · 모 · 예 · 배

####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                |                                         |        |
|----------------|-----------------------------------------|--------|
| 묵상기도 .....     | 시편 98:4~9 .....                         | 다같이    |
| 찬송 .....       | 내 영혼이 은총 입어(새438, 통495) .....           | 다같이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 다같이    |
| 기도 .....       |                                         | 가족 중에서 |
| 성경봉독 .....     | 데살로니가전서 4:14~17 .....                   | 가족 중에서 |
| 설교 .....       |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                    | 설교자    |
| 찬송 .....       | 하나님의 나팔소리(새180, 통168) .....             | 다같이    |
| 추모하는 이야기 ..... |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 다같이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 들어가는 말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지나간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

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16절).

성경 말씀과 사건들은 상징과 모형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더욱 그러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을,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할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레 23:24). 나팔을 불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하

“**축복의 전제, 진리 안에서의 사랑**”: 본문은 장로가 가이오에게 전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 내의 특정 직분자라기보다 넓은 의미로 원로를 가리키며, 축복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로는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는 장로가 그 수혜자인 가이오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제는 복을 구하는 자가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진리(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위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진리에 있으며, 더욱 성숙해야 할 사랑의 소망도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밝아온 새해,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로서 무엇보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 진리 안에서의 행통**”: 장로가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은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입니다(2절). 여기서 ‘잘되다’라는 말은 ‘길을 잘 가다’라는 뜻으로, 장로는 가이오가 모든 삶의 길을 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길을 잘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에 다시 언급되는 ‘진리 안에서’에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는 삶이란 사업, 관계, 자녀, 건강 등의 단순한 성공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행통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영혼의 행통함을 전

제로 하여 가이오의 모든 일의 행통을 간구한 것입니다. 밝아온 새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 행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결과, 진리 안에서의 순종**”: 장로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3절). 장로는 이 기쁨을 더욱 강조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4절). 여기서 ‘내 자녀들’이란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자녀들이며,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총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장로가 가이오를 축복하며 기대하는 가장 큰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밝아온 새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나가는 말

진정한 축복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축복으로서 모든 일이 잘되는 삶이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행통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축복의 결과로써 오직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밝아온 새해,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모든 일이 행통케 되고, 진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님의 새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듯이 고인을 추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 멈추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17절).

사도 바울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있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감정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알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장차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17절).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계 21:5). 사도 바울도 종말의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헤어짐과 이별과 분열이 아닌 연합과 하나 됨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이 되면 사과에 꿀을 찍어서 서로에게 먹여 주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라는 축복의 인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 나가는 말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인을 추모한다는 것은 다시 오시리라는 주의 재림을 믿는 것이며, 이 땅에서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요, 영원한 행복을 알지 못한 채 갈등하며 분열된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삶,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기드온 등 성경의 중요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기생이라고도 하고 창녀라고도 불리는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이 부도덕한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합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이 선택되었을까요? 라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혈통 가운데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라합과 정탐꾼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히 11:31).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마 1:5-6).

라합은 룯이라는 여인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유다 족속의 족장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유는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라합의 변화에 대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준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이교도적이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마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멸망당하지 않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멸망의 대상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여호수

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이 워낙 견고하고 치안이 치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정탐꾼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숨어서 정보를 얻기 쉬운 곳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가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경찰들이 알게 되었고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경찰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거짓말로 여리고 경찰들을 따돌렸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을 살려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

첫째, 라합의 믿음은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리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생명을 내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리고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숨겨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라합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8-9절).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정복당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돕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내건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지만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라합의 선택은 죽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합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종말의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어도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육체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를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요, 죽어야 하는 죽음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입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어떤 대가와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라합은 살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 은혜로 얻은, 전인격적 믿음

둘째,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얻은 믿음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소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합은 누구보다 그 소문을 빨리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라합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퍼져 나간 소문이 가져다 준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로 얻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임하여 준비시킵니다.

셋째,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 믿음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10-11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은 지식적인 영역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다, 두려워했다,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라합은 지식과 감정에 기초하고, 의지가 움직여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에는 내용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이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 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는 것입니다”(약 2:25-26).

### 세상과 맞선 믿음

넷째, 라합의 믿음은 세상과 맞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라합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 따라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홀로 믿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반박문을 내건 것은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거대한 종교적 악의 세력과 맞선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선을 뛰어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A.D. 4세기경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논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 논쟁으로 혼란스러울 때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황제로부터 이단으로 몰렸고 다섯 번이나 유배를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정통교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통교리를 말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가 위험한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마틴 루터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기가 깨달은 믿음이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이자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12면에 계속)**



# “이방 사람을 확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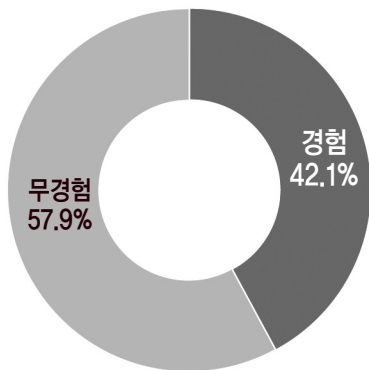
##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82만 명, 8년 동안 248% 증가 크고 작은 갈등에서 비롯된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심각

민족 최고의 명절 설(2월 5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 친지, 고향집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마냥 기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부엌일 전세내야 하는 며느리들이다. 며느리들의 고충은 우리나라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문화가정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명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염려된다. 설날을 앞두고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정현주 기자, 권찬송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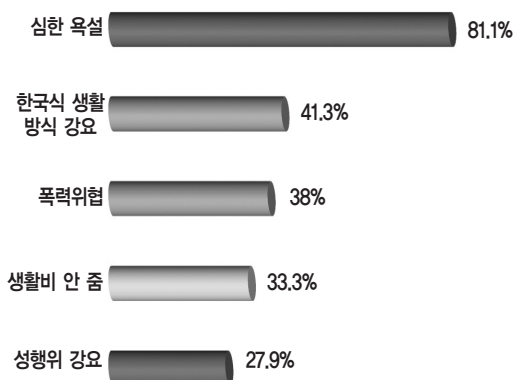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경험 비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유형(중복)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18만 명(법무부, 2017년)이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24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5% 정도를 차지한다. 학계에서는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2007년 약 33만 명에서 2015년 약 82만 명으로 8년 동안 248%나 증가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가 21만2,826명, 외국인 사위 2만6,872명이다.

다문화가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언어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갈등이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123건이었던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피해자 검거수가 2015년 782건으로 1년 만에 6배나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절대 다수가 여성이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절반에 가까운 42.1%가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정폭력 유형(복수응답 가능)은 심한 욕설(81.1%)이 가장 많았고,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위협(38%), 필요한 생활비 안 줌(33.3%), 성행위 강요(27.9%) 등이 그 다음 순이었다. 부모님과 모국 모욕(26%), 흥기위협(19.9%), 성추행과 강간(15.5%)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 50대 남성이 부부싸움 끝에 필리핀에서 시집온 아내(38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몇 년 동안이나 산 그 이주여성의 아픔과 상처를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여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었다. 두번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으려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다문화가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 나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왜 다문화가정을 섬겨야 할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왜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섬겨야 할까? 성경이 곧 이주민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거처를 옮겼다(창 12:1). 그의 자손들은 약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생활했다.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아버지 아담과 형제들을 데려왔다(창 47:1~12). 예수님 또한 헤롯 왕을 피해 애굽에서 머무르셨다(마 2:13~14). 헤롯 왕이 죽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했다.

또 성경은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방 사람을 확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출 22:21).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자보호법이 나와 있다. 약자보호법에는 나그네(이방인) 보호법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이삭을 남기는 전통을 통해서 외국인 나그네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네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네 이삭을 주우려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네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레 19:9~10).

그 외에도 십일조 법(신 14:28~29), 첫 열매를 드리는 법(신 16:11) 등을 통해 이주민 보호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보호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이주민 보호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행해야 한다. 필요한 교육도 해야 한다.

###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다문화가정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갈등은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다. 결혼 6개월 차인 터키 출신 일크누르 김(23세) 씨도 서툰 한국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

“터키어에는 높임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른들과 대화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요. 혹여나 실수로 반말을 해서 어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베트남에서는 임신부에게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한국에서는 금기시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해롭다고 여기는 음식이 한국에서는 권장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임신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어려움은 미역국을 먹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 A씨는 “베트남에서는 아기를 낳은 뒤 고깃국을 먹는 것이 전통인데 미역국에서 나는 참기를 냄새가 참기 어려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서로 다른 명절문화로 갈등 빚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명절에 주로 여자들이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남녀 모두가 역할을 구분한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인 주부 담모(36세) 씨는 한국 명절문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설날이 시작되기 전에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설 당일에는 손님들 밥상까지 차려줘야 해서 충격이 컸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설날이 싫어졌어요.”

한국 생활 10년째인 중국인 왕모(34세) 씨에게 중국에서도 명절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설날에 먹는 만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빚고, 만두가 익으면 함께 먹으면서 TV를 보니까. 며느리라고 앞치마 두르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남자들이 TV 앞에서 빈둥거리는 모습은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적인 갈등을 더 자주 겪는다. 상대방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만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적극 알고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구분 짓지 않는 것이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차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2017년 영향력 있는 10대 30인’으로 선정되었던 혼혈 모델 한현민은 BBC News 코리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다문화가정을 돕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섬겨야 한다. 온누리교회에는 이주민들을 돕는 다양한 예배공동체가 있다. 국제예배(영어예배, 중국어예배, 일본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와 온누리M미션(러시아어, 네덜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페르시아어 등 16개 언어 30개 예배)이다. 그곳에 가면 이주민 2천여 명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 이주민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자.

생각해 봅시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교회

##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 나그네의 보호자



노규석 목사  
(온누리M미션 담임)

안산M센터 1층에 있는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에는 8개국에서 온 4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고 있다. 주일에는 안산M센터에서 60~70여 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안

산M센터는 항상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북적인다.

하루는 한 아이가 부모님이 수술을 받았으며 병원심방을 요청했다. 나는 병원을 찾아가 그 아이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가정은 안산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생활했다. 서울에 살던 당시 학교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중국 사람이지, 너는 짱깨야"라며 아이를 매일 놀려댔다고 한다. 이 아이는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이 가정은 아이를 생각해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최근 TV에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와 학교,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조차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정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삶 또한 어렵다. 안산M센터 베트남어예배에 출석하는 한 베트남 자매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고 한다. 그렇게 소망하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다. 그러나 결혼하고 불과 10개월 만에 한국인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 자매가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어 수년 동안 빚을 갚으며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전에 이미 시한부 인생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죽기 전에 결혼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국인 남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시택에서 불치병을 숨기고 국제결혼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 베트남 자매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상처를 받았다.

한 여인의 삶을 이렇듯 쉽게 악용하고 속일 수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 할 말을 잊고 말았다. 누가 한국인 남편과 시택에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이 베트남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인생을 보살펴 줄 수 있을까?

다문화 여성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쏟아질까 두렵고 또 떨린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이주민 여성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 울어줘야 한



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대한민국 위에 임할 것이라고 믿는다.

##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 '진짜 친구'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에게는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먼저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에게 다가간다면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성경에도 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이주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평생 가나안 땅을 떠돌며 살았던 이주민이었다. 요셉은 이주민으로 이집트에서 인생역전을 이루고, 이집트 여인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어 자랐고,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결국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다.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고, 증조할머니는 모압 여인 룓이었다. 다윗 왕은 혈통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후손이었다. 아기 예수님도 이주민이셨다. 헤롯의 칼을 피하기 위해 온 가정이 이집트에서 피신생활을 하며 고달픈 삶을 살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해외에서 성장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

리스인,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 나그네의 보호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그들을 대신하여 친히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고 하셨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비록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할지라도 최소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에 안산M센터에서 공부한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서 첫 번째 대학졸업생이 배출된다. 10여 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엄마 손에 이끌려 온 칸 다닐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그 형제는 고려인인데 한국어를 전혀 몰랐고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큰 난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산M센터 선생님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칸 다닐 형제를 안산M센터로 초청했다. 칸 다닐 형제는 안산M센터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한

국 대학에 진학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대학 학비를 지불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온누리교회 여러 집사님들과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4년 동안 대학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칸 다닐 형제 외에도 몽골, 중국, 러시아에서 온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 아이들의 고백 속에는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응원을 해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국제화로 가는 길, 선교의 시작

나에게는 이제 9살 된 막내딸이 있다. 딸은 주일마다 안산M센터에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친구들과 뛰어 논다. 우리 딸에게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 나는 딸을 통해서 다문화가정과 친해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들과 만나게 된다. 부모들과 차 한 잔 나누면서 서로의 삶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다. 언어의 장벽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한국어 선생님 되어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다. 우리도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제화는 외국에 나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타문화 선교와 해외 아웃리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다문화가정을 공동체 순모임에 초청하는 것이 바로 국제화로 가는 길이요, 선교의 시작이다.

2019년 한국에는 25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몇 년 후가 되면 300~400만 명을 넘어서 500만 명의 외국인과 우리가 함께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한국 사회가 국제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이때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문화가정, 이주민들, 유학생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한국 교회는 한국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온 수많은 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문화가정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한국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것이다.

## Holy Spirit

###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행복해요!”

단순하지만 묵직한 이 고백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백발이 성성하고 수더분한 인상에 중후한 목소리의 주인공 배기선 집사(강서공동체)가 기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한 말이다. 배 집사를 행복하게 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다. 배 집사는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한 ‘돌다릿골 빨래터’에서 일하고 있다. 조금 미안하지만 쪽방촌 주민들의 이불은 정말 더럽다. 그 더러운 이불을 빨면서도 배 집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제는 동자동 주민이 다 됐다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떠오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나는 빨래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 동자동 ‘돌다릿골 빨래터’ 지킴이 배기선 집사

“아이고, 말도 말아요. 이불이 어찌나 더럽던지...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불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피부병까지 걸렸단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내성이 생겼나 봐요(웃음).”

배기선 집사가 깔깔 웃으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배 집사의 일터는 돌다릿골 빨래터(후암로57길 9-3)다. 돌다릿골 빨래터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세탁 편의시설(서울시, KT, 온누리복지재단 공동 운영)이다. 지난해 8월 개소했다.

쪽방의 크기는 3.3㎡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좁은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탁기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쪽방촌 주민들에게 돌다릿골 빨래터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다.

### 이방인 배 집사, 동네 형님이 되다

돌다릿골 빨래터에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뿔어내는 소음과 열기가 가득했다. 변변한 냉난방 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여름에는 땀에 절고, 겨울에는 외투를 입고 일해야 한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배 집사의 얼굴에서 힘든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갈색 지갑이 까맣게 변색되고, 점퍼가 뜯어져 불쌍스럽게 꿰매놔어도 늘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다.

“돌다릿골 빨래터는 단순히 쪽방촌 주민들에게 깨끗한 이불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돌다릿골 빨래터를 통해서 이곳 주민들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돌다릿골 빨래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된다. 그런데 배 집사는 돌다릿골 빨래터가 개소한 이래 저녁 7시 전에 퇴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루 종일 돌다릿골 빨래터에서 살다시피 한다. 돌다릿골 빨래터에는 주민 7명이 자활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배 집사는 자활근로자들의 근무 배정 및 관리감독, 업무매뉴얼 교육, 장소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할 수 없는 주민을 찾아가 직접 이불을 걷어오기도 하고, 깨끗하게 빨 이불을 다시 갖다 주는 일도 배 집사가 한다. 뿐만 아니라 배 집사는 쪽방촌 주민들을 초대해서 밥을 해 먹이기도 한다. 그 일을 ‘행복한 밥상’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하던 주민들이 지금은 너무나 좋아한다.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떡국, 삼계탕, 탕수육, 수육, 비빔밥 등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식사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있어요. 최고의 음식인 만큼 테이블 세팅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아세요? 깨끗한 테이블보를 깔고, 김치도 예쁘게 썰어서 담아요. 정갈한 상차림을 보고 주민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며 정말 좋아해요. 서울역쪽방상담소 직원들도 같이 먹기도 해요. 행복한 밥상을 통해 직원들과 주민들이 더욱 친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쪽방촌 주민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지내는 일이 처음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돌다릿골 빨래터 개소 초기에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민들의 반대와 거부가 상당했었다.

“돌다릿골 빨래터에서 뭐 하나 할 때마다 주민들이 웃통 벗고 반대했어요. 목살 잡힌 적도 수차례고요. 욕은 기본이고 샷대질까지 당했어요. 그러던 주민들이 지금은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동자동 주민 다 됐다면서요.”

###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배기선 집사는 1997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계기는 아버지학교였다.

“당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버지학교에 나가보라고 해서 온누리교회에 왔어요. 당시 저는 교회를 옷 짝 빼입고 품 잡으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의류사업을 크게 했거든요. 직원도 수백 명 둘 정도로 꽤 잘 나갔어요.”

품 잡으러 교회 다녔던 배 집사가 변했다. 아버지학교의 그 유명한 줄무늬 티셔츠를 만든 인물이 바로 배 집사다.

“지금은 아버지학교의 대명사처럼 됐지만 처음에는 그 티셔츠를 보고 다들 ‘이런 걸 누가 입냐’고 했어요. 하용조 목사님조차요(웃음).”

아버지학교 수료 이후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아버지학교 봉사자로 3년 넘게 불꽃같이 사역했다. 그런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결국 아내와 이혼했어요.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아내에게 줬어요. 그 일이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정불화, 사업 부침 등을 겪던 배 집사를 버티게 한 건 신앙이었다. 신앙이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게 했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은퇴 후에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힘이 들었지만 그 와

중에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자격증 따는데 1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리 어려운지... 저만 할아버지더라고요.”

배 집사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것들이 돌다릿골 빨래터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배 집사의 꿈과 비전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다.

“앞으로 돌다릿골 빨래터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돌다릿골 빨래터를 통해서 쪽방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환경도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돌다릿골 빨래터에서 자활하면 이곳은 자활기업이 되는 것이고, 동자동 주민들은 자활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돌다릿골 빨래터가 사회적 기업이 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배 집사의 입술에서는 인터뷰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이야기뿐이었다. 주민들을 위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부락을 쉬지 않고 했다.

“쪽방촌 주민 약 80%가 50대 이상인데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불면증,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또 쪽방촌 주민 대부분이 너무 적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도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방은 비좁고,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아닙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는지 물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호품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찾아와서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 먹는 일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말벗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서울역쪽방상담소(희망공동체) 봉사자 모집  
문의: 유 형 장로 010-8730-6188  
김광훈 팀장 010-3710-5338

## 신년특집 성령 따라 온 누리로!

## 농사도우미 우리 목사님!

## 경남 산청 부곡교회 박재관 목사님과 강명희 사모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해야 할 사역지가 너무 많다. 본지에서는 ‘성령 따라 온 누리로!’를 주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과 사역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에 있는 부곡교회 박재관 목사님과 강명희 사모다. 그들 부부는 KBS1 교양프로그램 〈인간극장〉 ‘우리 같이 오래 사임시다’ 편에 소개될 만큼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에 작은 시골 교회가 하나 있다. 부곡교회다. 박재관 목사님과 강명희 사모, 3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박 목사 부부와 성도들은 오부면(부곡지역) 일대 8개 마을 600여 명의 주민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고 기도하고 있다. 특히 박재관 목사는 농사짓는 목사님으로 유명하다. 박 목사님과 강명희 사모 이야기는 KBS1 교양프로그램 인간극장에 방영되기도 했다.

박 목사님은 농사철이면 눈코 뜰 새가 없다. 공짜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민들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봄에는 트랙터로 논을 갈아주고, 가을에는 콤바인으로 추수를 해준다. 전도하고 기도할 이웃을 찾아다니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강명희 사모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다.

## 부곡교회의 ‘트랙터와 콤바인 선교’

부곡교회가 자리한 오부면 일대는 경상남도 쪽으로 뻗은 지리산 줄기 끝자락이다. 굽이치는 산자락마다 마을이 들어서 있다. 주변의 산세가 가미술 형상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부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정도로 외지고 척박한 곳이다. 그런데 척박한 땅치고 주민 수가 제법 많다. 이곳이 유기농 농산물 산지이기 때문이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사 수익이 낮을 뿐 아니라 일손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데 말이다. 오부면 부곡지역 일대 주민 대부분이 70~90대인데 지금껏 농사일을 계속 하는 데는 부곡교회 박 목사 역할이 한몫을 했다. 이를 증명하듯 부곡교회에는 농번기를 기다리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이 묵묵히 서있다. 트랙터와 콤바인이 부곡교회 최고의 선교도구이다.

트랙터는 주로 봄에 작물을 심기 전 논밭을 뒤엎는데 사용한다. 콤바인은 벼를 수확하는 탈곡기다. 콤바인이 황금 들녘을 훑고 지나가면 이삭에서 난알만 탈곡해 커다란 통에 담아 준다. 트랙터와 콤바인이 핵심 농기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농민들이 트랙터와 콤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트랙터와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일당을 받아가며 그 일을 해준다.

부곡교회 박재관 목사님은 바쁜 농사철에 농



벌써 봄이 오면 부지런히 농사일을 돕고 싶다는 ‘박재관 목사’.

기계도 없고, 형편도 넉넉지 않은 농가에 일을 해준다. 조건부로 교회 한 번 나오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가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섬기는 일은 정말 별 것 아니에요. 돕고 돕는 게 사람 사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랭이 논(경사진 산비탈을 개간하여 층층이 만든 계단식 논)이나 좁은 밭은 거리가 멀고 규모도 작아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논밭에 주로 가요. 저희 교회는 안과 밖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은 평등하고 예비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마치면 인사만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교회로 찾아와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 보여주기

박재관 목사님은 2009년 12월 31일 부곡교회에 부임했다. 올해로 10년째 어르신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목회하고 있다.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가슴 속의 깊은 상처를 생각하며 눈앞의 유익보다 한 영혼을 위한 진심을 보여 주기를 원해요. 부임 당

시에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인사하는 주민들을 보고 놀랐어요. 함께 사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말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박 목사님은 10여 년 동안 입은 무겁고 몸은 가볍게 생활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려고 했다.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이 지역 주민들은 박 목사님을 주민으로 여긴다. 아니 믿고 의지한다.

“주민들도 교회에 나오면 좋은 건 아는데 주변의 친지들 관계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직접적인 전도보다 간접적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민들의 이름을 주보에 적어서 온 성도가 함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힘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 명씩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무당이었던 분이 자진해서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부곡교회는 현재 3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교회에서 성경공부 하는 게 왜 특별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큰 열매다.

“하루에 2시간 정도 농사일 텅하고 성경공부를 하면 주민들은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래도 성경공부를 하자고 강권했더니 한두 분씩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 말이죠.”

## “받은 사랑 먹고 살아요”

돈 한 푼 안 받고 퍼주기만 하면 목사님은 뭘 먹고 사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박재관 목사님과 강명희 사모는 “받은 사랑 먹고 살아요”라고 말한다. 이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 말인지 박 목사님의 사정을 알면 알 수 있다.

부곡교회가 전보다 성장은 했지만 재정자립은 먼 훗날 이야기다. 박재관 목사님과 강명희 사모는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쪼개서 겨우 교회 살림과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 지원금에서 십일조와 선교헌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장을 보러 가면 먹고 싶은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딸기가 정말 먹고 싶어도 사정이 어려워니까 ‘조금 지나서 값이 떨어지면 그때 먹어요’라고 말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 딸기가 한 상자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저희 먹으라고 두고 가신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날에는 고기가 있고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더 열심히 섬기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박재관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KBS1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성도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만 부각 돼서 부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농어촌교회도 똑같이 힘들고, 목회자들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에서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다른 농어촌교회 이야기가 됩니다. 농어촌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십시오. 농어촌은 선교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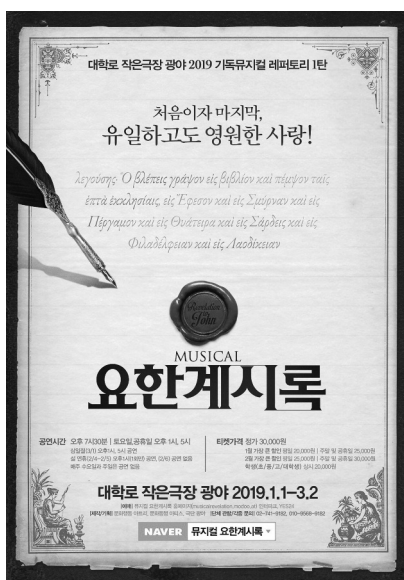
부곡교회 이웃리치는 사시사철 할 수 있다. 봄과 가을에는 농사일을 돕고, 여름에는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마을잔치를 열어주면 좋다. 근처에 학생 20여 명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도 좋다. 노후된 트랙터와 콤바인 교체를 위한 재정후원도 좋다.

문의: 010-5407-6575

## 볼만한 공연 뮤지컬 '요한계시록'

## '일곱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

## 예언서 요한계시록 쉽고 재미있게 해석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요한계시록을 난해한 예언서라고 인식하고 있다.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창작 뮤지컬이 한 편 나왔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주인공 에클레시아

가 아도나이 왕자의 사랑을 일곱 도시에 전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관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녹아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바벨론 세상은 위대한 왕 사다이를 배반한 반역자 벨리알이 지배하고 있었다. 벨리알은 거짓으로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사다이 왕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아도나이 왕자를 보낸다. 하지만 백성들은 벨리알의 선동에 넘어가 아도나이 왕자를 처형한다. 그러나 얼마 후 아도나이 왕자는 죽음을 극복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아도나이 왕자는 사

랑하는 여인 에클레시아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말쿠트사마림 왕국으로 간다.

아도나이 왕자를 사랑했던 에클레시아는 왕자가 돌아올 거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곱 도시로 향한다. 그 여정에 아도나이가 보낸 심부름꾼 파라도 함께 한다.

그 일곱 도시는 진심 없이 의무감으로 아도나이 왕자를 따르는 '에베소', 사다이 왕 대신 바벨론 황제를 숭배하는 '서머나', 온갖 신들을 골고루 섬기는 '버가모', 화려한 유행으로 반짝이는 '두아디라', 난공불락의 요새 '사테', 사다이 왕에게 충성하면 생계마저 위협당하는 '빌라델비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이 흐르는 바벨론 최고의 의료 도시 '라오디게아'이다.

일곱 도시를 찾아 아도나이 왕자의 소식을 전하는 에클레시아를 벨리알이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2015년 초연 당시 200여 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20회 공연하면서 관객 5천 명이 찾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16년 설악아트홀

에서 막 오른 양코르 공연은 29회, 관객 8천 5백 명을 동원했다. 2017년 7월 대학로 기독교뮤지컬 전용관 '작은극장 광야' 개관작으로 선보였을 때는 총 관객 1만 명이 관람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 제작과 기획은 문화행동 아트리, 문화동행 아티스, 작은 극단 광야가 맡았다. 출연은 배우 염예은(에클레시아 역), 김재광(벨리알 역), 심재성(파라도 역), 이미연(루디아 역), 장한얼(안디바 역), 윤은채(폴리갑, 남편 클레인 역), 이하영(디도라바 역), 오성연(하기오스 역), 임채영(부인 멜리사 역) 등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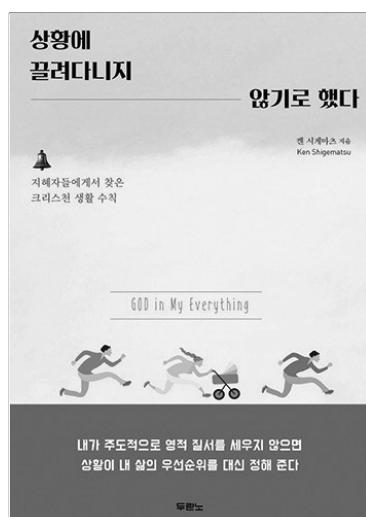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3월 2일까지 이어진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1시와 5시 작은극장 광야(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100 지하1층 대학로예술극장3관)에서 막 오른다. 티켓은 1월 평일 2만 원, 주말 2만5천 원, 2월 평일 2만5천 원, 주말 3만 원이다. 예매는 인터파크, 예스24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741-9182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두란노 신간

## 건강한 생활수칙과 하나님과의 관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켄 시게마츠 저 | 두란노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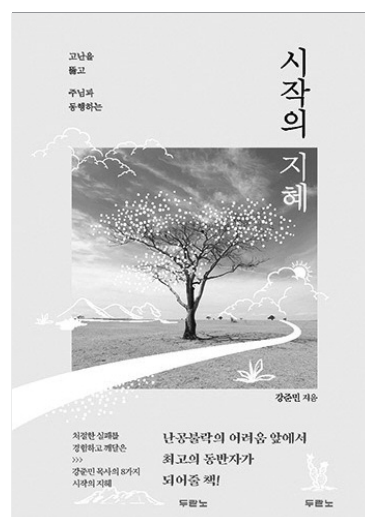
에 왜 그토록 바쁘게 사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제안했다.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발견해야 한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분주한 생활 때문에 몸은 점점 지쳐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일상에 지쳐있는 크리스천들이 건강한 생활수칙을 유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책이 한 권 나왔다. 바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이다. 이 책 한 권 읽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수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켄 시게마츠 목사는 건강한 생활수칙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알람을 맞춰 놓고 가끔씩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짧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훈련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저자는 일주일 중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시간

## 여호수아처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시작의 지혜〉  
강준민 저 | 두란노 | 13,000원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준비', '새로운 땅', '새로운 전략', '새로운 연합',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대', '새로운 동행', '새로운 작전' 등 8가지 주제로 엮었다. 인생을 지혜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좋은 책이 한 권 나왔다. 강준민 목사가 쓴 〈시작의 지혜〉이다.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주옥같은 지혜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까? 강준민 목사는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시대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갈림길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잘 준비될수록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새 시대의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 서울역쪽방상담소(희망공동체) 봉사자 모집

### 3월부터 쪽방촌 주민들 대상 심방사역

서울역쪽방상담소(희망공동체)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3월부터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방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5개 쪽방촌이 있는데 약 3,500세대가 살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에는 1,2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 ‘

서울역쪽방상담소’(용산구 후암로 57길 35-15)를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일대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한화수 목사는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주민들을 심방하면서 삶의 용기와 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면서 “심방사역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문의 유 형 장로 010-8730-6188  
서빙고 김광훈 팀장 010-3710-5338  
양재 이상협 팀장 010-9285-5840

##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 개최

### 13개국 이주민 1,100명 참석 예정

2019년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가 오는 2월 2일부터 25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된다.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1,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날수련회에서는 CIS연합(Rusta), 몽골,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태국 등 20여 개 국가별 연합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용순 목사(안산M센터)는 “매년

설날수련회를 통해서 국가별 예배 공동체가 더욱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올해 설날수련회를 통해서 각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후원: 573-810081-74605(하나은행)  
문의: 031-491-74605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평택 탁구선교회 창단예배

### 오늘(27일) 오후 3시 평택 온누리교회 교육관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 창단예배를 오늘(27일) 오후 3시 평택 온누리교회 교육관에서 드린다.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는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탁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교팀이다. 탁구선교회 창단예배 이

후에는 탁구대회가 열린다.

윤경섭 팀장(탁구선교회)은 “탁구선교회를 통해서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권찬송 기자

## 르완다에 ‘평화의 집’ 짓는다

### 꿈땅과 NGO 더멋진세상, 저금통 모집 중

차세대 꿈이자라는땅(조등부)과 NGO 더멋진세상이 르완다 대학살 피해 가정들 돕기 위해 ‘평화의 집짓기 저금통’을 모으고 있다. 차세대 꿈땅 예배에서 모은 저금통으로 르완다 대학살 희생자 가족 중에서 형편이 열악한 세 가정에게 새로운 보급자리를 선물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차세대 아웃리치팀이 르완다 가혼도 마을을 방문해서 평화의 집 건축에 참여하고, 르완다 대학살 희생자 가족들도 만날 예정이다. 주일학교 교회 캠프 등도 계획하고 있다. 르완다 대학살은 1994년 벌어졌는데 당시 르완다 전체 인구의 10%인 100만 명이 희생당했다. 르완다 정부는 현재까지 대학살 피해 가정을 위한 정책과 학살사건을 일으킨 두 종족 간의 화해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두란노바이블칼리지 2월 세미나

### 할아버지학교, 기독교고전문학과 영성

두란노바이블칼리지 2월 세미나 ‘할아버지학교’, ‘기독교고전문학과 영성’이 개강한다. 할아버지학교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정체성과 비전을 깨닫고 회복하는 세미나다.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누리기독교 문화전시장 EM홀에서 진행된다. 도은미 사모(가정사역자, 아버지학교 창설)가 강의한다. 회비는 10만원. 문의: 02-2078-3267

기독교 고전문학과 영성은 기독교

고 고전문학 3권의 중심 주제와 기독교 영성과 역사를 살펴보는 세미나다. 2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 낫사의 그레고리 <모세의 생애>, <베네딕트 규칙서>를 중심으로 이강학 교수(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남기정 박사(감신대 초빙교수), 권혁일 박사(장신대 초빙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원. 문의: 02-2078-3279

### 1월 세레자

|            |            |            |            |             |            |            |
|------------|------------|------------|------------|-------------|------------|------------|
| ■서빙고       | 박단아 171103 | 장하민 170220 | 천준수 850917 | 배은성 170613  | 임하람 161031 | SNS        |
| 김정현 760909 | 박성운 유수현    | 장인석 장서운    | 입교         | 배석원 강혜진     | 임남섭 민보라    | 이자연 890510 |
| 유현우 990102 | 박잔재 170310 | 장하운 180813 | 주현후 031124 | 상의준 170512  | 정아원 170424 | 입교         |
| 이단희 781003 | 박준하 양나옥    | 장인석 장서운    | 유아         | 상민규 조한나     | 정수웅 백수현    | 전소현 960425 |
| 이설희 820405 | 안서하 170912 | 하린아 170417 | 권유진 171212 | 윤이로 170512  | ■대학청년부     | 유아         |
| 정지태 871216 | 안정우 윤한나    | 하상범 나유진    | 권준택 박재원    | 윤희원 이주연     | 김하연 170925 | 김경준 정 울    |
| 유아         | 이다은 170313 | ■양재        | 김리은 161210 | 이루오 180112  | 하늘         | 유하진 171230 |
| 권다을 170609 | 이성준 천지애    | 김진영 741009 | 김기영 박주은    | 이대원 김은민     | 입교         | 윤인석 강수정    |
| 권세윤 정진희    | 이은호 170223 | 김진영 741009 | 김유민 170929 | 이예스터 170313 | 박정인 000516 | 양다혜 940906 |
| 김한별 170725 | 이선호 신지혜    | 문정희 880609 | 김홍석 서지영    | 이효재 최세향     | 양다혜 940906 |            |
| 김승호 심성순    | 이하윤 170126 | 민소정 710617 | 박시은 170525 | 이예린 180311  |            |            |
|            | 이지훈 김혜연    | 변가령 750621 | 박상진 이가람    | 이창석 권윤경     |            |            |

###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
| 1133433 | JIN HAFENG | 중국어예배   | 1133458 | 김영인 | 서빙고    | 1133486 | 김주희 | 여호수아      | 1133515 | 강경숙 | SNS     |
| 1133434 | 조상진        | 영등포구로   | 1133459 | 장기연 | 강남C    | 1133487 | 이선우 | 여호수아      | 1133516 | 박지원 | SNS     |
| 1133435 | 박기선        | CEM영어예배 | 1133460 | 김영구 | 강남C    | 1133488 | 장은재 | 여호수아      | 1133518 | 김하경 | SNS     |
| 1133436 | 김지연        | SNS     | 1133461 | 오세라 | 대전 남누리 | 1133489 | 엄정환 | 여호수아      | 1133519 | 정예은 | SNS     |
| 1133437 | 한수정        | SNS     | 1133462 | 박현목 | 경기A    | 1133490 | 허수미 | 여호수아      | 1133520 | 신혜리 | SNS     |
| 1133438 | 최소신        | SNS     | 1133463 | 이은정 | 수원 남누리 | 1133491 | 김이레 | 여호수아      | 1133521 | 이수남 | SNS     |
| 1133439 | 주 협        | SNS     | 1133464 | 고지아 | 가정사역   | 1133492 | 한지혜 | 여호수아      | 1133522 | 최훈석 | 서산온누리   |
| 1133440 | 안수영        | SNS     | 1133465 | 김기쁨 | J4U    | 1133494 | 오경환 | 허브        | 1133523 | 노기춘 | 강남B     |
| 1133441 | 윤신애        | SNS     | 1133466 | 고지민 | J4U    | 1133495 | 오승아 | 허브        | 1133524 | 이준용 | J4U     |
| 1133442 | 박지수        | SNS     | 1133467 | 백설빈 | 강동 말씀  | 1133496 | 이재은 | 허브        | 1133525 | 최창근 | J4U     |
| 1133443 | 김정윤        | SNS     | 1133468 | 박승욱 | 아수     | 1133497 | 이예주 | 허브        | 1133526 | 황의천 | OCC     |
| 1133444 | 장주현        | SNS     | 1133470 | 황경애 | 대전 남누리 | 1133498 | 박준우 | 허브        | 1133527 | 김현우 | J4U     |
| 1133445 | 김초롱        | SNS     | 1133471 | 채송화 | 갈렘     | 1133499 | 박은영 | Bridge33+ | 1133528 | 이정호 | 수원 SEED |
| 1133446 | 서예빈        | SNS     | 1133472 | 강종경 | 중종로    | 1133500 | 여재익 | 강남B       | 1133529 | 조성형 | 수원 SEED |
| 1133449 | 이일현        | 서빙고     | 1133473 | 김종찬 | 성동광진   | 1133501 | 김재건 | 부천 소망     | 1133530 | 연준모 | 수원 SEED |
| 1133451 | 주소진        | 양지 서누리  | 1133475 | 김정윤 | 용산     | 1133502 | 김성필 | 영등포구로     | 1133531 | 박진환 | 대전 동누리  |
| 1133452 | 김영삼        | 양지 서누리  | 1133476 | 반재홍 | 서초C    | 1133509 | 임현지 | 대전 동누리    | 1133533 | 강미정 | 수원 남누리  |
| 1133453 | 박상희        | 양지 서누리  | 1133481 | 이승은 | 서초B    | 1133510 | 이동욱 | 양재        | 1133534 | 여은주 | 분당B     |
| 1133454 | 양철훈        | 양지 서누리  | 1133482 | 문정민 | 여호수아   | 1133511 | 조영일 | 대전 남누리    |         |     |         |
| 1133455 | 박창준        | 양지 동누리  | 1133483 | 성명욱 | 강서     | 1133512 | 이인수 | 양지 동누리    |         |     |         |
| 1133456 | 이금옥        | 양지 서누리  | 1133484 | 이준희 | 여호수아   | 1133513 | 이동욱 | SNS       |         |     |         |
| 1133457 | 전영오        | 양지 서누리  | 1133485 | 송유진 | 여호수아   | 1133514 | 박혜영 | SNS       |         |     |         |

## ■ 내가 만난 하나님



/ 김효선 자매(J4U공동체)

## 내 뜻보다 크신 주

지난해 이맘때쯤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지는 글’을 담은 출판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생겼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할 때만 해도 책 디자인은 나와 맞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 업무가 나와 맞지 않아서 2달 만에 퇴사했고, 계획에 없던 공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다음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1인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다. 월급이 없으니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나님께 이 길이 맞는지 수없이 묻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지키라는 마음과 함께 딱 한 걸음 만큼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 어느 날은 주일예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반복해서 밀려오는 물음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내 마음 깊숙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미래의 계획을 내 힘으로 잡고 두려워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

한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전심으로 인정하지 못했다. 그저 믿음이라는 말에 ‘아멘’이라는 반응이 익숙해져 온 연약한 사람이었다.

11월 한 달 동안 출판사 등록 및 모든 출간 준비를 끝냈다. 뻘뻘한 일정이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첫 책 <감성일기>가 교보문고와 다른 서점들에 입고되었다. 이 책은 30가지 인간의 마음 상태와 감정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고찰한 내용이다. 나는 사람의 감정 또한 신앙과 믿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무너지게 공격하는 거짓 감정도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감정들이나 내면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하게 깨닫고 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처음 한 달 동안 판매량을 보며 낙심하기도 했지만 이제에는 개의치 않는다. 2018년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계획대로 분명히 이끄시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단련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미래의 결과를 불드는 것이 아닌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 ■ ‘다에’ 다문화학교 교사 간증



/ 한미술 성도(Point5공동체)

## 믿음, 인내, 사랑

작년 한 해는 나에게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을 6년 만에 뗀 변화의 해였다. 작년 연초, 올 한해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섬김이 필요한 곳에서 작게나마 봉사하자고 새해 다짐을 했었다. 그러던 중 다문화 쪽에 관심이 있고, 교직을 이수한 나에게 딱 맞는 다문화 학교와 인연이 닿게 되었다. 그 학교는 ‘다에’ 다문화학교였다. 처음에는 자원 봉사자로 섬기려 했지만 학교에서는 전임을 요청했다. 많은 고민 끝에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학생들을 섬기게 되었다.

가르침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학생들 때문에 행복과 보람을 느꼈지만 또 학생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여러 사정으로 한창 예민할 나이에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온 각 국의 학생들은 다양한 가정 배경과 이품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한국말과 한국 문화 등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들은 때로 말하기 싫은 주제와 상황에 언어를 핑계로 입과 귀를 닫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언어의 자유로움보다 믿음, 인내,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학생들이 결국 마음을 연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놀랍도록 변화된다. 학생들은 일취월장하는 한국어 실력과 함께 경계의 빗장을 풀며 기분 좋은 변화들을 보여줬다. 표정이 밝아지며 웃음도 늘고,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도 생기고, 자신감이 자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학생들을 보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모습과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비교해 하염없이 작겠지만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게 되는 그 마음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힘을 때마다 주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뒤돌아보니 작년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이었는지 보게 된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나의 삶을 늘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나를 향한 주님의 다음 계획이 또 기대된다.

## ■ 제안합니다



/ 이승근 집사 (경기A공동체)

## 선교사님과의 만남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이런저런 모양의 만남을 갖는다. 나는 중국 A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자 한다. 10여 년 전 공동체선교사로 연결된 A 선교사님과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8명 정도가 모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모임이 진행됐다. 그날 내가 가진 선교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실타래 풀리듯 풀어졌다.

A 선교사님과 지금도 교제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은 깊은 영적 통찰력이다. 다른 어떤 만남에서 느낄 수 없는 통찰력이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금 일깨워주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온누리교회는 책임선교사 제도가 정착되어 각 공동체 다락방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를 의무로만 생각한다면 깊은 영적 유익을 간파하는 것이다.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축도하는데 성도들이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의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A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몇 가지 오해가 풀렸다. 첫째, 무언가를 해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졌다. 교제를 통한 상

호소통이 먼저지 당위적으로 ~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 유익이 성도님들께도 자연스레 전해졌으면 좋겠다. 둘째, 선교사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다. 교제를 통해 계속 배우는 것은 완전해서 부르심에 순종하셨기보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모습이다.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이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교회인데 제도적인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답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하지만 선교사님과 만남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새로워질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생겨날 것이다

그동안 교제했던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배운 부분이 있다. 그분은 WEC라는 선교단체 파송이신데 한 사람의 영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짧은 글로 선교사님과의 만남의 유익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선교사님들과의 적극적 만남을 통해서 깊은 영적 유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 ■ 이주민선교학교 수료 간증



/ 김종령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5년 전 수원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민 쉼터(대피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부터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그곳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들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주민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다. 나는 이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만 인식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주민선교학교를 수강하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수원 이주민선교학교에는 안산M센터, 남양주 온누리교회 등에서 실제로 이주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셨다. 강사님들은 이주민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셨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다. 우리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큼 그들을 양육해서 역 파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강사님들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해주는 것 등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권면하셨다.

한 조원분께서 나눠주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그분은 자녀교육 차원에서 아이와 함께 화성M센터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한글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과 자녀 양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매주 화성M센터에 방문해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계셨다.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선교는 퇴직 후 여유가 생기면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만 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조는 수원 이주민선교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를 마치고 화성M센터를 방문하여 몽골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도 했다. 그곳에 참석해 보니 이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예배부터 식사까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매우 어색했다. 마치 우리가 이주민이 된 것 같았다. 이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됐다.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이 여러 섬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 장로칼럼

##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순장님은!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시작된 2018-2019 작은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얼마 전에 끝이 났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

력에 힘입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새해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명으로 바랍처럼 불처럼 교회를 변화시키시길 간절히 바란다.

온누리교회가 성령 안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이다.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믿음 안에서 작은 섬김을 행할 때만 들어진다. 순장님들은 리더십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 목양에 힘쓸 것이다.

순장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동력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이 동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에서 나온다. 나는 열정을 생각하면 스포츠가 떠오른다. 붉은 악마로 기억되는 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을 온통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으로 뒤덮었다. 박항서 감독은 약팀 베트남 축구팀을 통해서 축구 역사에 기적을 써내려갔다. 한국과 베트남이 박항서 매직에 열광하고 있

다. 이런 일들은 열정과 집념이 살아나면 큰 산도 움직일 수 있음을 실증해 보였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0.01초를 줄이기 위해 온갖 역경과 시련을 넘어야 했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뀐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순간 무심코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다. 이런 시간의 소중함에 새삼 숙연해진다. 하나님께서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엡 5:16-18).

승패를 떠나 끝없이 도전하는 것이 스포츠 정신이고 열정이다. 그 도전과 열정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배웠으면 참 좋겠다.

순장님들이 변화와 성숙을 의지만으로 이루어 가기는 어렵다.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해야 한다’는 강한 열정만이 순장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준비된 크리스천들이 세워질 것이다. 나는 이 진리를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깨달았다.

새해를 맞아 언 땅에 봄이 찾아오고 있다. 봄에는 농부들이 언 땅을 쟁기로 갈아엎고 겸허한 마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다.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땅에만 뿌려져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건강한 공동체, 안식과 쉼이 있는 순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순장님들을 축복한다.

## 권사칼럼

## 새로운 도전과 헌신

남기희 권사  
(마포공동체)

나는 1995년 온누리 교회에 처음 출석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역과 기도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나는 2011년 ‘40일 특별 새벽 부흥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다. 2011년 특별 새벽 부흥집회의 주제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였다. 당시 나는 50대 초반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20장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포도원의 비유를 살펴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했다. 늦게 온 일꾼들에게도 일찍 온 일꾼들과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늦은 시기지만 나의 남은 인생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됐다.

나는 새로운 도전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다. 늦은 나이에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예전만큼 머리 회전이 되지 않았고 강의를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지금의 학업과정은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커리큘럼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하루하루가 고된 도전이었다.

사회복지사 준비 과정 중 실습으로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에서 봉사했다. 그때 한 교수님께서는 나에게 상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며 칭찬해주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내담자에게 제공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학업에 집중하게 되어 석사

과정에 도전하게 되었다.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만큼 아내와 엄마로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교모임에 빠지게 되고 가까운 지인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학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훗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모습을 기대했다.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빌 4:13).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특히 작년에 천국으로 가신 친정 어머니께 가장 감사하다.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학비를 지원해주셨다. 나는 친정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공부한다고 할 때 처음엔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지금은 용기와 격려를 아낌없이 주고 있다.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다. 지금은 박사논문이 마무리되어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가 주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 신앙에세이

백인규 전도사  
(Point5공동체)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다.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친할머니 때문에 어머니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셨다. 어머니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셨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나는 성장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중학교 때는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잠시 아프리카에서 생활했다. 고등학교 때는 미국으로 다시 돌

아와 이모택에서 지냈다. 이모는 내게 목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의사가 수술에 실패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지만 목회자가 신실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모는 내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때 그 죄를 전부 책임질 수 있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때 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의 한인 교회에는 상처 받은 영혼들이 많다. 이민자로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민생활을 더욱 힘들어 한다. 내 주변에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믿음을 잃은 친구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목회자의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없었다. 결국 나는 평신도로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결심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회자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내가 다시 목회의 길을 간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생길 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2011년 아프리카로 단기선교를 갔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 선교를 가기 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영적인 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로 인해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 스스로와 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됐다. 그 경험을 통해서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다시 결단하게 되었다.

선교여행 이후 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1년 동안 단기선교를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 신학공부를 했다.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은 온누리교회 Point5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Point5공동체의 비전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이후 한국에 돌아온 크리스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인디아스 포터를 훈련시켜 세계 어디에서도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어진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사선을 뛰어넘는 선택

###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고의 믿음을

다섯째, 라합의 믿음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졌지만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11절b).

라합이 들었던 소문의 내용은 많지도, 복잡하지도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 요 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족속을 진멸하셨다는 것이었습 니다. 그것을 통해 라합이 깨달은 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하늘과 땅의 진정한 신이시다”는 것입니다. 라합 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많 은 지식과 진리의 분량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를 붙들 고 있느냐입니다. 단 하나의 진리를 진정 믿느냐는 것입니 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믿음으로 굳게 붙잡 지 않으면 정보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 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그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변화가 일 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 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동굴 전체가 환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 어디선가 비치는 희미 한 불빛을 향하여 걸어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 리의 지식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아니라도 단 하 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친다면 살 수 있습니다. 우 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시도보다 알 고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느냐에 영적 생명 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비추어오는 한줄

기 빛을 보고, 자기의 몸을 그 빛에 내던지는 모험이다”라 고 말했습니다.

### 참 이스라엘인이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여섯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이스라 엘인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멸망 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누구보다 참 이스라 엘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육신의 혈 통에서 난 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이가 참 이스라엘인입니다. 참 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 진정 이스라엘 인입니다.

어떤 윤리학자들은 라합이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 이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하신다는 뜻 이 아닙니다.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녀의 부도 덕한 삶과 거짓말까지 모두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문화 수준에서 그 이상의 다른 대화를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윤리적으로 반 듯한 삶을 살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허 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믿 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합의 죄와 실수 를 부각시키기보다 라합에게 있는 칭찬 받을 만한 믿음, 모 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세상은 선한 일은 간과하고 악한 일을 들춰내기를 원하지 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단점, 연약함,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이 원하시는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접해 주십니 다.

일곱째, 라합의 믿음은 타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었습니다. 라합은 자기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 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 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들의 목숨을 살려 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 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12~13절).

여리고가 멸망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 라합 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로 가 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라합의 행동은 가장 위험해 보였 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당장 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택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확실히 보 장받는 선택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육체의 죽음을 피했을 뿐 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 받았습니다. 라 합이 익숙했던 여리고를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믿음 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익숙한 세상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 과 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보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가운데 불미 스텝거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것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 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특별기교

## “Love never fails(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고은님 작가

복귀작으로 기독 교 콘텐츠를 정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 로 그분의 간섭이셨 다. 〈천상의 회원 곶 배령〉 이후 오랫동안 드라마 작업을 급하셨는데 갑자기 허락하신 이유, 그것

도 CGNTV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가 궁금했다. “사랑의 통역사가 되어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 님의 언어로 곧이곧대로 전하면 오히려 하나 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거나 마음이 완악 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듣는 자녀들의 언어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 이라고 하셨다.

그 사랑의 통역 방법으로 미디어·예술 등 문 화 영역의 언어는 아주 효과적이다.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 K-POP 열풍만 봐도 알 수 있다. 왜곡된 뉴 스나 다큐멘터리 한 편은 쉽게 대중을 미혹하 고 선동할 수 있다.

이미 문화 영역의 대부분을 사탄이 장악하여 마치 문화 자체가 악한 것처럼 보이게까지 한 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버리고 오직 찬송 가만 불러야 안전할 것 같다. 하지만 창조주며 예술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새로운 노 래를 부르신다. 이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 해 부르시는 그분의 새로운 Father’s Song이 무엇인지 잘 듣고 ‘사람의 언어’로 잘 옮겨보 려 했는데 통역 실력이 너무나 신통치 않아 속 상했다.

그렇다면 왜 CGNTV였을까. 자금이나 인력 등 제작 환경이 여러모로 어려워 끝없는 중보 기도와 헌신 없이는 드라마 한 편 완성하기가 이다지도 힘들고, 게다가 CGNTV는 본래 순수 복음을 전하는 채널인데 말이다.

세상 방송국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대륙의 오지까지 안테나가 설치되어 하나님 사랑의 언어를 전할 하늘 길들이 땅 끝까지 열려있다 는 것이 감사했다. 돈과 인맥과 힘으로 움직이 는 세상의 방송국 시스템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껏 쓰실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했다.

“Love never fails.”

고린도전서 13장 중에서도 이 말씀은 내게 특히 어려운 숙제였다. 오래 참기도 해보고, 허 물들을 덮기도 해보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도 보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 는 것’에는 매번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패했으 니 애초에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그런 식의 서글픈 자책이 있곤 했다. 그러다 이제야 조금 깨달은 것은, 사랑은 곧 생명이라서, ‘날고 날 고’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누 군가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반드시 다른 누군 가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달 은 사랑은 기어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 매를 먹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의 씨앗이 다시 잉태된다는 것. 그 ‘사랑의 릴레이’는 결 코 실패하지 않는다.

드라마 〈고고송〉의 여주인공 ‘공선화’는 누 구보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다. 사랑하고 싶 어서, 베풀고 돌봐주고 싶어서, 직업까지 ‘사회 복지사’를 선택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사랑 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두렵다. 지금은 사랑

한다고 뜨겁게 고백하지만 결국은 식을 것이 고 변할 것이고 홀로 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다 열지 않는다. 행 여나 사랑이 변하고 홀로 남겨졌을 때 상처받 고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미리 ‘나 살 구석’을 남겨두는 것이다.

“그래야 살지. 마음 다 내주고 어떻게 살아?” 그 두려움의 시작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 다. 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돌아온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이 녹기 시작한 선회는 그제야 주 위를 둘러본다. 작고 힘없고 이기적으로까지 보였던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사 랑하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는다. 전심(全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사랑의 파워 가 닫혔던 선회의 마음을 열어 버린다. 너무 늦 은 건 아닐까, 그 문이 여전히 내게 열려 있을 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선회는 아 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일단 gogo!! 전심으로 달려간다. 〈고고송〉은 사소하 지만 용기 있는 사랑의 액션들이 자주 사랑을 날고 날으며 점점 커지기를 소망하며 쓴 노래 이다. gogo song. Love never fails.

제1231호 | 2019년 1월 27일(주일)

# 2019 온누리교회 찬양사역자 모집

◆ 서빙고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1부 06:50    | 주찬양   | 주일 오전 5:20-6:30<br>오전 8:30-9:50<br>수요일 오후 7:00  | 시간: 2월 10일(주일) 오전 8시 30분<br>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br>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1절만)                  | 이영규 총무<br>010-6231-2104 |
|             | 챔버    | 주일 오전 6:00                                      | 시간: 2월 10일(주일) 오전 8시<br>장소: 성가대실(지하 1층 식당 맞은편)<br>모집: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br>자격: 전공자           | 유원희 팀장<br>010-3747-5072 |
| 2부 09:00    | 주사랑   | 주일 오전 7:20-8:40<br>목요일 오후 7:30-9:30             | 시간: 1월 31일(목요일)/2월 7일(목) 오후 7시<br>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br>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                 | 송찬석 총무<br>010-2315-6598 |
| 3부 11:30    | 주향한   | 주일 오전 10:00-11:15<br>화요일 오후 7:20-9:30           | 시간: 2월 12일(화요일) 오후 7시<br>장소: 성가대실(지하 1층 식당 맞은편)<br>곡목: 기쁜 부으심 1절(신앙우 곡) 암보<br>찬송가 자유곡, 파트별 조건 | 정영일 총무<br>010-9599-1403 |
| 4부 13:50    | 온누리위십 | 주일 오전 11:20-13:00<br>주일 오후 15:30<br>수요일 오후 8:00 | 시간: 2월 10일(주일) 오후 3시 30분<br>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br>곡목: 자랑곡(오디션 신청서 공지)                     | 이시정 총무<br>010-4531-7153 |
| 새벽 1부 05:20 | 예배인도팀 | 오전 4:50                                         | 일시: 수시로<br>곡목: 자유곡 (찬송가)                                                                      | 강현 총무<br>010-9025-0099  |
| 새벽 2부 06:30 | 예배인도팀 | 오전 6:10                                         | 일시: 수시로<br>곡목: 찬양곡(자유곡)                                                                       | 황민영 총무<br>010-8707-8283 |

◆ 양재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1부 06:50       | 챔버    | 주일 오전 6:00                                              | 자격요건: 전공자, 대학생 이상<br>(오디션 없음)                                                            | 박정규 성가사<br>010-8881-0796 |
| 2부 09:00       | 주의빛   | 주일 오전 7:10<br>목요일(필요시)                                  | 일시: 2월 10일(주일) 10시 30분<br>장소: 숙소 등 지하층 두란노홀<br>곡목: 자유곡 1곡                                | 김수현 총무<br>010-8295-9815  |
|                | 챔버    | 주일 오전 8:00                                              | 일시: 수시로<br>자격조건: 전공자(오디션 없음)                                                             | 문주현 팀장<br>010-4796-4501  |
| 도곡 1부 09:00    | 주경배   | 주일 오전 7:00-8:00<br>11:00-13:00(화평홀)<br>목요일 오후 7:00-9:30 | 일시: 수시로<br>곡목: 자유곡 1곡                                                                    | 이영경 총무<br>010-3418-0691  |
|                | 챔버    | 주일 오전 8:00<br>목요일 오후 7:00-9:30<br>(충성홀)                 | 시간: 2월 10일(주일) 1부 예배 후<br>장소: 도곡성전 챔버석 무대 뒤<br>곡목: 1.자유곡 2.초전곡(주어진 찬양곡,이조)<br>자격: 전공자    | 최연수 팀장<br>010-3714-6922  |
| 도곡 2부 11:30    | 주임재   | 주일 오전 8:50-11:00<br>화요일 오후 7:00-9:30                    | 일시: 수시로<br>곡목: 자유곡 1곡                                                                    | 김영주 총무<br>010-4166-6595  |
|                | 챔버    | 주일 오전 10:50                                             | 일시: 수시로<br>자격조건: 전공자(오디션 없음)                                                             | 강상명 팀장<br>010-2337-7707  |
| 3부 11:30       | 뮤지컬찬양 | 주일 오후 2:00-5:00<br>월요일 오후 7:40                          | 일시: 2월 3일 / 2월 10일 주일 13시 10분<br>장소: 지하 2층 비전홀 (MC실 옆 안쪽)<br>곡목: 자유곡 1곡                  | 정수진 총무<br>010-2271-6461  |
| 4부 13:50       | 주기쁨   | 주일 오후 12:00-1:30<br>주일 오후 3:30-5:30                     | 일시: 2월 3일 오후 3시 30분, 10일 오후 5시 30분<br>장소: 숙소 등 지하 1층 두란노홀<br>곡목: 찬송가 중 1곡 자유곡(찬송가 지참 필수) | 한별 총무<br>010-7127-3775   |
|                | 챔버    | 주일 오후 1:15                                              | 일시: 수시로<br>자격조건: 전공자(오디션 없음)                                                             | 박지화 팀장<br>010-4786-3004  |
| 6부 특별한초대 19:00 | 콰이어   | 주일 오후 4:00                                              | 담당자 번호로 개별 연락                                                                            | 이동천 팀장<br>010-6221-7604  |
| 새벽 기도회         | 챔버    | 매일 새벽 4:40~5:10                                         | 담당자 번호로 개별 연락                                                                            | 이선희 팀장<br>010-3185-0607  |

◆ 부천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2부 09:00 | 주순길                     | 주일 오전 7:30                          | 시간: 성가사와 상의 후<br>장소: 지하 1층 시온홀<br>곡목: 자유곡<br>자격: 세례교인                                                      | 전지영 성가사<br>010-4127-9527<br>김형진 팀장<br>010-9806-8718 |
| 3부 11:30 | 주높임                     | 주일 오전 9:30-11:00<br>주일 오후 1:30-3:00 | 시간: 2월 주일 4주간 오후 1시 30분<br>장소: 지하 1층 시온홀<br>곡목: 찬송가 - 내 영혼이 은총입어<br>자격: 일대일 마친 등록교인, 찬양의 은사와 헌신의 열정이 있는 사람 | 오희경 성가사<br>010-6423-2350<br>김성원 총무<br>010-5384-7136 |
| 1부 07:00 | 예배인도팀                   | 주일 오전 6:30-6:50                     | 시간: 담당자와 상의 후<br>장소: 지하 1층 시온홀<br>곡목: 찬송가 1곡, 자유곡 1곡<br>자격: 공동체소속                                          | 김주영 전도사<br>010-3169-3946                            |
| 2부 09:00 | 예배인도팀                   | 주일 오전 8:10-8:50                     |                                                                                                            |                                                     |
| 3부 11:30 | 예배인도팀                   | 주일 오전 10:30-11:10                   |                                                                                                            |                                                     |
| 4부 14:00 | 예배인도팀<br>밴드(간반)         | 주일 오후 13:00-13:45                   |                                                                                                            |                                                     |
| 6부 19:00 | 예배인도팀<br>밴드<br>(간반, 세컨) | 주일 오후 18:00-18:45                   |                                                                                                            |                                                     |

◆ 수원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1부 07:00     | 주순중      | 주일 오전 6:00-6:50<br>주일 오전 9:00-10:00  | 시간: 성가사와 상의 후<br>장소: 지하 1층 시온홀<br>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br>자격: 공동체소속 | 허은경 총무<br>010-9289-4639 |
| 2부 09:00     | 주드림      | 주일 오전 7:30-8:30<br>주일 오전 10:40-12:00 |                                                                  | 배창준 총무<br>010-9442-7708 |
|              | 챔버       | 주일 오전 7:30-8:30<br>주일 오전 10:40-12:00 |                                                                  | 김종대 팀장<br>010-6418-7646 |
| 3부 11:30     | 주함께      | 주일 오전 10:00-11:00<br>주일 오후 2:00-3:00 |                                                                  | 박현수 총무<br>010-5626-0034 |
| 4부 14:00     | 주영광      | 주일 오후 12:30-2:00<br>주일 오후 4:00-5:20  |                                                                  | 남기웅 총무<br>010-8895-4696 |
|              | 찬양인도팀    | 주일 오후 1:00<br>주일 오후 3:30-4:30        | 밴드(일렉기타)                                                         | 김범준 팀장<br>010-8989-7825 |
| 수요 예배 19:40  | 수요 온누리위십 | 수요일 오후 6:00                          | 모집: 싱어, 중보기도, 안내                                                 | 황선순 팀장<br>010-8900-4174 |
|              | 예배진행팀    |                                      | 영상 자막                                                            | 양현석 간사<br>010-8314-7509 |
| 수요여성예배 10:30 | 카라       | 매주 화요일 오전 10:00<br>매주 수요일 오전 9:30    | 개별 연락                                                            | 안현진 팀장<br>010-8931-6025 |

◆ 대전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1부 09:00 | 주사랑 | 주일 오전 7:50-8:40<br>주일 오전 11:15-12:15 | 시간: 주일 11:40(사전 연락)<br>장소: 4층 연습실  | 최용백 총무<br>010-5079-4657 |
|          | 챔버  | 주일 오전 7:40-08:40                     |                                    |                         |
| 2부 11:30 | 주영광 | 주일 오전 9:00-11:20                     | 시간: 주일 오전 10시<br>(사전 연락 후 간단히 오디션) | 오세철 총무<br>010-6312-7813 |
|          | 챔버  | 주일 오전 9:00-11:00                     |                                    |                         |

◆ 남양주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1부 09:00 | 주찬양   | 주일 오전 8:00-8:45<br>주일 오전 11:00-12:40 | 장소: 5층 소망홀<br>모집: 각 파트별 00명                      | 최성보 총무<br>010-5085-4842  |
| 2부 11:30 | 주영광   | 주일 오전 9:00-11:00                     | 장소: 5층 소망홀<br>모집: 각 파트별 00명 / 챔버<br>(챔버는 오디션 진행) | 윤정숙 총무<br>010-5399-2546  |
|          | 챔버    |                                      |                                                  | 최재영 성가사<br>010-9620-4520 |
| 1부 09:00 | 찬양인도팀 | 토요일 오후 6:00-7:00                     | 장소: 본당<br>모집: 싱어, 일렉, 드럼                         | 김지훈 팀장<br>010-6473-5437  |
| 2부 11:30 |       | 토요일 오후 3:00-4:00<br>(격주)             | 장소: 본당<br>모집: 싱어, 일렉, 베이스                        | 최영집 팀장<br>010-7576-7799  |
| 3부 14:00 |       | 토요일 오후 4:00-6:00                     | 장소: 본당<br>모집: 싱어, 건반, 일렉, 드럼, 베이스                | 고용욱 팀장<br>010-3027-1965  |
| 4부 19:00 |       | 주일 오후 5:00                           | 장소: 본당<br>모집: 싱어, 일렉, 베이스, 엔지니어                  | 박성자 팀장<br>010-6249-5091  |

◆ 평택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2부 11:30                   | 주향기 | 주일 오전 8:30~11:00                      | 오디션 있음(오후 2:00-3:00)<br>곡명: 자유곡   | 최혁재 성가사<br>010-7462-7475 |
| 1부 09:00                   | 싱어팀 | 주일 오전 8:30-8:50                       | 개별면접과 오디션                         | 이용민 전도사<br>010-4619-0720 |
| 2부 11:30                   | 챔버  | 주일 오전 10:30-11:15                     |                                   |                          |
| 수요예배 19:30<br>수요여성예배 10:30 | 싱어팀 | 수요일 오후 6:50-7:20<br>수요일 오전 9:30-10:30 |                                   |                          |

◆ 인천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1부 09:00     | 주은혜<br>찬양사역팀             | 주일 오전 7:30-8:40<br>오전 11:00-12:30  | 수시모집 (면접시 개별 연락)                                                                       | 유상재 팀장<br>010-5724-1839                            |
|              | 챔버                       | 주일 오전 8:00-8:50                    | 모집: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 김성미 팀장<br>010-9431-4073                            |
|              | 찬양인도팀                    | 주일 오전 8:00-8:50                    | 모집: 싱어 면접시 개별 연락                                                                       | 임재희 팀장<br>010-3743-0858                            |
|              | 예배진행팀                    | 주일 오전 8:00-8:50                    | 자막 / 방송영상 / 예배진행 FD<br>안내 / 주차 / 차량봉사                                                  | 최현진 간사<br>010-5351-9241                            |
| 2부 11:25     | 주빌리<br>찬양사역팀             | 주일 오전 9:40-11:30<br>오후 1:40-2:30   | 수시모집 (면접시 개별 연락)                                                                       | 정민호 팀장<br>010-5254-4176                            |
|              | 챔버                       | 주일 오전 10:30-11:20                  | 모집: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 김선경 팀장<br>010-9741-0023                            |
|              | 찬양인도팀                    | 주일 오전 10:30-11:20                  | 모집: 싱어 면접시 개별 연락                                                                       | 송태근 팀장<br>010-8382-4060                            |
|              | 예배진행팀                    | 주일 오전 10:30-11:20                  | 자막 / 방송영상 / 예배진행 FD<br>안내 / 주차 / 차량봉사                                                  | 최현진 간사<br>010-5351-9241                            |
| 3부 13:45     | 찬양인도팀                    | 주일 오후 1:00-1:40                    | 모집: 싱어 면접시 개별 연락                                                                       | 김정미 팀장<br>010-9976-0670                            |
|              | 챔버                       | 주일 오후 1:00-1:40                    | 모집: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                                                           | 이정진 팀장<br>010-3570-6365                            |
|              | 예배진행팀                    | 주일 오후 1:00-1:40                    | 자막 / 방송영상 / 예배진행 FD<br>안내 / 주차 / 차량봉사                                                  | 최현진 간사<br>010-5351-9241                            |
|              | 새벽 기도회 5:20              | 매일 오전 5:00-5:20<br>(월~토)           | 반주 / 싱어 / 자막 / 음향 /                                                                    | 하갑천 팀장<br>010-3534-7751                            |
| 주일 예배        | 처치빌더스<br>(연세대)<br>(칸벤시아) | 주일 오전 6:30~7:30<br>주일 오후 3:15~4:00 | 예배처소 세팅 (본당 / 차세대)<br>- 예배장비 하차 / 운반 / 설치<br>예배처소 해체 (본당 / 차세대)<br>- 예배장비 해체 / 운반 / 상차 | 윤석주 팀장<br>010-7518-7627<br>현경일 팀장<br>010-8318-7450 |
|              | 수요오전예배 10:30             | 찬양인도팀<br>예배진행팀                     | 수요일 오전 9:30-10:30                                                                      | 오미경 팀장<br>010-6306-2647                            |
| 수요저녁예배 19:40 | 찬양인도팀<br>예배진행팀           | 수요일 오후 6:00-7:30                   | 싱어 / 자막 / 음향 / 중보기도 / 안내                                                               | 이선복 팀장<br>010-3774-5667                            |

◆ 강동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1부 09:00   | 주찬양         | 주일 오전 7:45-8:30<br>주일 오전 10:30-12:00     | 모집: 각 파트                             | 인준 팀장<br>010-5811-3775  |
|            | 찬양인도팀       | 주일 오전 8:30                               | 모집: 싱어<br>오디션 일정: 개별통보               | 서수민 목사<br>010-3948-8594 |
|            | 예배진행팀       |                                          | 모집: 카메라, 스위처, 음향<br>인터뷰 일정: 개별통보     | 송재호 목사<br>010-7499-8010 |
| 2부 11:30   | 주기쁨         | 주일 오전 9:00-10:30<br>주일 오후 1:10-2:30      | 모집: 각 파트                             | 김상균 팀장<br>010-3412-4862 |
|            | 챔버          | 주일 오전 10:30                              | 모집: 현악기, 관악기                         | 강수정 팀장<br>010-4519-6067 |
|            | 찬양인도팀       | 주일 오전 10:50                              | 모집: 싱어, 일렉기타<br>오디션 일정: 개별통보         | 서수민 목사<br>010-3948-8594 |
| 3부 14:00   | 예배진행팀       |                                          | 모집: PD, 음향, 자막<br>인터뷰 일정: 개별통보       | 송재호 목사<br>010-7499-8010 |
|            | 프라미스<br>콰이어 | 주일 오후 12:00-13:00<br>주일 오후 6:00-7:00     | 모집: 각 파트                             | 유수미 팀장<br>010-4697-8678 |
|            | 찬양인도팀       | 악기(주일) 오전 10:30-12:00<br>싱어(토요일) 오후 2:00 | 모집: 각 파트<br>오디션 일정: 개별통보             | 서수민 목사<br>010-3948-8594 |
| 새벽 06:20   | 예배진행팀       |                                          | 모집: 카메라, 자막, 스위처, FD<br>인터뷰 일정: 개별통보 | 조지은 팀장<br>010-3298-7934 |
|            | 찬양인도팀       | 해당 요일 오전 6:00                            | 모집: 싱어(주 1회 이상)                      | 김성욱 목사<br>010-6213-4523 |
|            | 수요 여성 예배팀   | 수요일 오전 9:30                              | 모집: 싱어, 음향, 자막<br>인터뷰 일정: 개별통보       | 서수민 목사<br>010-3948-8594 |
| 수요저녁 19:30 | 수요 저녁 예배팀   | 수요일 저녁 6:50                              | 모집: 싱어, 음향, 자막<br>인터뷰 일정: 개별통보       | 김성욱 목사<br>010-6213-4523 |

◆ 양지

| 예배       | 이름    | 연습시간                            |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 담당자                     |
|----------|-------|---------------------------------|-----------------------------------|-------------------------|
| 1부 09:00 | 성가대   | 주일 오전 7:50<br>주일 오전 10:30-12:00 |                                   | 오명규 팀장<br>010-8878-7673 |
|          | 찬양인도팀 | 주일 오전 8:20                      | 모집: 보컬, 일렉(개별 연락)                 | 이동구 팀장<br>010-3896-6652 |
| 2부 11:00 | 웍십콰이어 | 주일 오전 9:40                      |                                   | 김미옥 팀장<br>010-3226-4351 |

# Acts29

## 게시판

2019년 1월 27일(주일) | 제1231호

### 14 온누리신문

#### 서빙고

02.793.9686

#####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 2019년 주차기준 및 주차증 디자인

##### 변경

내용: 1.월가짜 우선주차증 신청 후 2월

부터 신규발급 주차증 이용

신청 기준: 1. 장애인(국가 발급 장애인증

소지자), 2. 노약자(70세 이상), 3.

영유아 동반차량(만 6세 미만 2

명 이상), 4. 임신부

##### 예수사랑부 겨울캠프 봉사자 모집

일시: 2월 16일~17일

장소: 에버랜드, Acts29비전빌리지, 용인한

국민속천

인원: 20명

내용: 장애인 돌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직원 모집

업무: 선교사 숙소 관리(상도동 소재)

자격: 선교에 관심 있거나 헌신된 40세

이상 남자

문의: 홍범식 장로(010-5004-3191)

#####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양재

02.570.7430

#####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 도곡2관 (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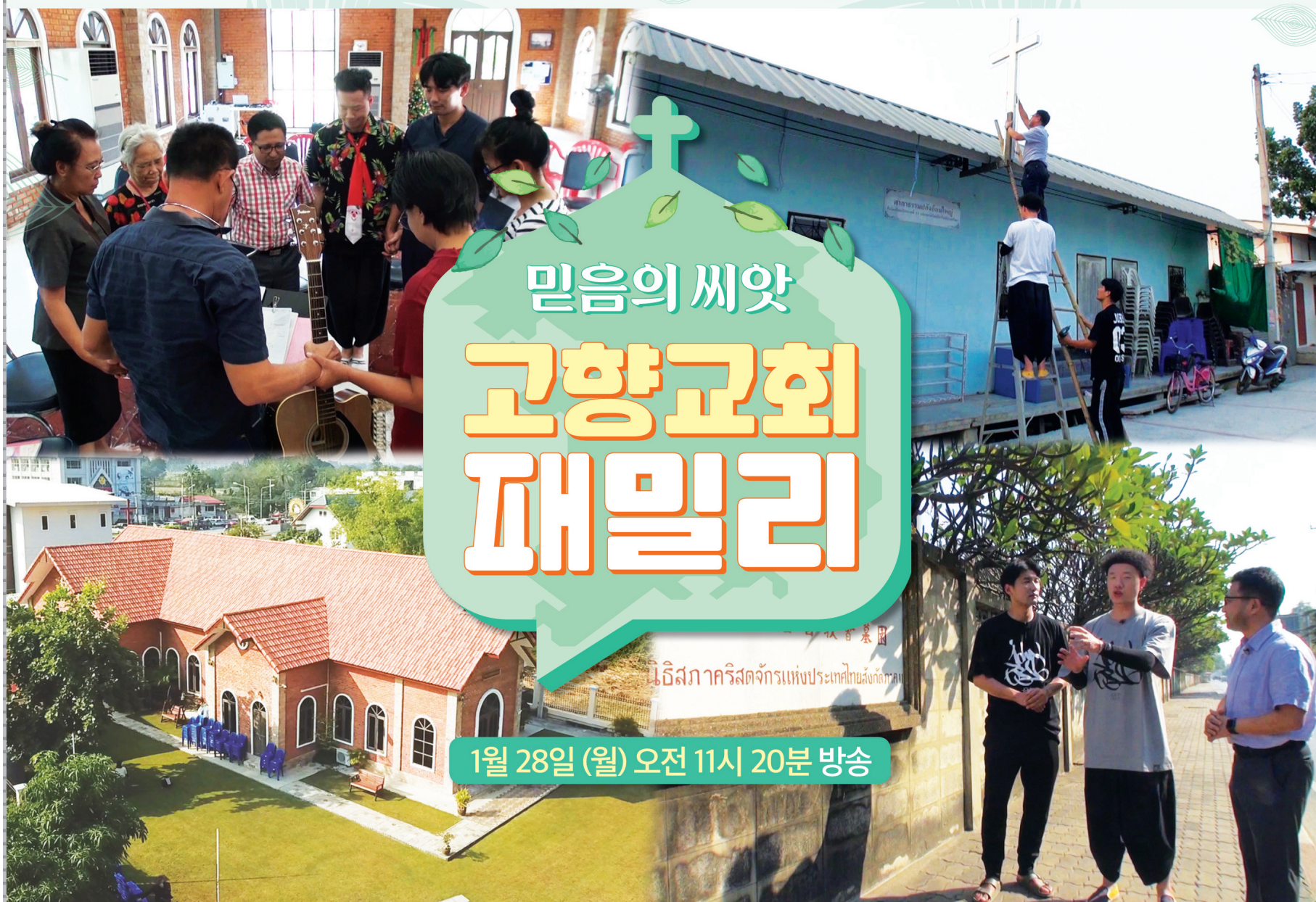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CGNTV



1월 28일 (월) 오전 11시 20분 방송

신년특집

태국으로 향한 복음의 발걸음 편

기독교인구 1% 태국,

115년 선교 역사 탐방과 코코넛 농장 심방을 통해 믿음의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MC 개그맨 이정규, 히스팝 김형주 간사 출연 송진호 선교사

다시보기: [www.cgntv.net](http://www.cgntv.net)

포털 검색창에 “고향교회 패밀리” 검색